

장혜진 “영화 ‘애비규환’ 찍으며 ‘좋은 엄마’ 생각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백수 가족의 엄마 역으로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장혜진이 코미디 휴먼 영화 ‘애비규환’으로 돌아왔다.

‘기생충’의 종속으로 그를 기억할 많은 관객에게 새로운 모습을 펼쳐 보인다.

12월 개봉하는 ‘애비규환’은 5개월 차 임신부 ‘토일’(정수정)이 15년 전 연락 끊긴 친아빠와 집 나간 예비 아빠를 찾아 나서며 엄마 선명(장혜진)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다.

속도위반을 한 대학생 딸을 둔 엄마가 된 장혜진을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장혜진이 연기한 선명은 그동안 맡은 엄마 역할과는 또 다르다.

딸 ‘토일’ 못지않게 당당하고 화끈하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캐릭터다.

상냥한 부드러움 속에 독심을 지닌 얼굴로 흔들리는 ‘토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

장혜진은 처음 대본을 읽었을 당시에는 토일(정수정)이 아닌 호훈(신재휘)의 엄마 역에 욕심이 났었다고 했다.

그는 “원래는 호훈의 엄마(강말금) 역을 하고 싶었다.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엄마이고 신선해서 욕심이 났다”며 “감독님이 꼭 토일의 엄마여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선명이 주는 신선한 감동이 있다”며 “선명을 하길 잘한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장혜진과 선명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일까. 그는 “선명은 냉철하고 한번 생각하고 말한다. 그런 모습이 사실 나와 상반된다”며 “감독은 좀 더 냉철하길 원하셨던 것 같다.

대학생 임신부 딸 둔 엄마 ‘선명’ 역 “가족의 성장 이야기에 위로 받아”

연기하면서 동공이 흔들리기도 했다”고 웃었다. 극 중 딸 ‘토일’은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정수정(크리스탈)이 연기했다.

장혜진은 정수정과 모녀로 호흡을 맞춘 소감을 묻자 “더욱 기대되고 궁금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수정 배우를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봤는데 연기를 잘하더라. 눈빛이 살아있고 말이 푹 부러지고 리듬감이 있었다”며 “이후 슬기로운 감행생활에서 성숙한 감정이 느껴졌다. 기대되고 궁금했고 믿음이 있었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없었고 배우만 있었다”고 추억을 올렸다.

봉준호, 윤가은 등 내로라하는 감독들과 작업해온 장혜진은 이번 작품에선 92년생인 신인 감독과 만났다.

영화는 단편 ‘고슴도치 고슴’으로 주목받은 최하나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그는 “감독님 나이를 굳이 생각하면서 촬영하지는 않았다. 나에겐 디렉션을 해주시는 똑같은 감독님이다”면서도 “신선하기는 했다. 거침없이 얘기하고 고민하지 않고 의사 전달이 명확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현장에서 후술군한 추리닝(트레이닝)을 입고 외모를 잘 가꾸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생각하는 감독의 모습인데 최하나 감독님은 정말 옷 잘 입는 패피작이다”며 “정말 유쾌하시고 특유의 유머와 재치가 넘는 분이더라”고 미소 지었다.

토일이 극을 주도하지만 ‘애비규환’은 가족의 성장극이라 할 만하다.

17살의 큰 딸과 5살의 둘째 아들을 둔 장혜진은 엄마를 이해하는 딸을 마주하며 위안을 얻고 나를 돌아보게 됐다.

그는 “선명의 집안이 남들의 고정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풍가루 집안일 수 있지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선명은 행복하기 위해 이혼과 재혼을 선택했다. 토일의 성장 이야기지만 자기 삶의 오류를 인정하고 고치기로 한 모두의 성장 이야기”고 전했다.

이어 “영화를 찍으면서 부모님, 자식 보다는 나를 돌아보게 됐다. 좋은 엄마에 대해 생각했다”며 “우리 딸이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잘 버티고 일어나서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옆을 지켜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바랐다.

‘기생충’ 출연 이후 장혜진은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막을 내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이어 ‘산후조리원’ 등에 잇따라 출연했다.

현재는 tvN 새 수목드라마 ‘여신강림’ 촬영에 한창이다.

그는 ‘기생충’ 이후 삶이 크게 달라진 걸 느끼냐고 묻자 “못 느낀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갑자기 세상이 나에게 친절해진 느낌이다”고 답했다.

이어 “기준이 높아지고 이전의 작품 속 연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연기에 대한 마음가짐은 달라진 게 없다. 나를 선택해준 감독님과 관객들에게 느끼는 감사한 마음이 연기의 원동력이다”고 덧붙였다.



‘허쉬’ 임윤아, 3년만 드라마 복귀

평범한 월급쟁이 기자들 현실 담아...내달 11일 첫 방송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임윤아가 ‘극한 인턴’으로 돌아온다.

‘경우의 수’ 후속으로 다음달 11일 오후 11시 첫 방송되는 JTBC 새 금토극 ‘허쉬’ 측은 6일 24시간이 모자란 인턴 임윤아의 ‘웃픈’ 하루가 담긴 2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사들의 부름을 받는 만인의 인턴 이지수(임윤아 분), 한시도 멈추지 않는 바쁜 손가락이 공감 게이지를 상승시킨다.

‘허쉬’는 팬대보다 큐대 접는 날이 많은 ‘고인물’ 기자 한준혁(황정민 분)과 밝은 팬보다 강하다는 ‘생존형’ 인턴 이지수의 쌍방 성장기이자, 월급쟁이 기자들의 밤별이 라이프를 그린다.

이날 공개된 2차 티저 영상에는 이지수의 만만치 않은 ‘인턴 적응기’가 담겼다.

출근과 동시에 초집중 ‘열일’ 모드에 돌입한 이지수의 반짝이는 눈빛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손가락에 모터를 장착하고 동급 최강의

업무 스킬을 발휘하는 이지수. 이름 대신 만인의 “인턴”으로 불릴지라도, 당차고 씩씩한 대답은 거침이 없다.

하지만 점점 쌓여만 가는 서류 봉지와 컷가에 혹 치고 들어오는 선배 한준혁의 알미운 한숨 소리까지 듣고 있자니, 어느덧 기진맥진 퇴근 시간이다.

“인턴은 고달프다”는 지친 목소리도 잠시, 동기들의 치킨 회동 소환에 밝은 미소를 띠 채 업무 지옥을 탈출하는 극한 인턴 이지수의 출가분한 뒷모습이 격한 공감을 부른다.

여기에 “팬은 총보다 강하다”로 시작된 그녀의 좌우명을 완성시키는, “하지만 밝은 팬보다 강하다”는 경쾌한 외침은 언론인 이전에 평범한 월급쟁이 기자들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3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임윤아는 한층 더 넓어진 연기 스펙트럼으로 이지수의 성장기를 유쾌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그려낼 전망이다.

뉴스

BTS 슈가, 어깨 수술...당분간 활동 중단·회복 전념

각종 재활 훈련·치료 받아왔지만 크게 호전되지 않아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어깨 수술 여파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3일 좌측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외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과거 8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어깨 부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절대적인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슈가는 현재 충분한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팬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슈가는 오랜 기간 어깨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팔을 높이 들어올리는 동작이 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통증을 느끼는 등 다양한 증상을 겪어왔고 활동 내내 각종 재활 훈련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안타깝게도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주기가 더 짧아져 무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컸다”며 “슈가 본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리고 병역 이후 이어질 가수 활동을 위해서도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당시와의 긴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일부 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회복에 전념, 새 앨범 활동 기간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언이다.

소속사 측은 “수술 부위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나면 재활 치료를 거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소속사를 통해 “팬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 아쉽고 서운한 마음 모두 잘 알고 있다”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주시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유천 ‘노마스크’ 논란 사과...“걱정 끼쳐 죄송”

“태국 일정 중 콘서트 홍보 위한 VTR 촬영 중에 찍힌 것”



태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수 박유천이 “오해였다.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유천은 7일 공식 SNS를 통해 태국 입국

당시 공황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했다는 보도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게재했다.

박유천 측은 문제가 된 마스크 미착용 사진에 대해 “태국 일정 중 콘서트 홍보를 위한 VTR 촬영 중에 찍힌 것”이라며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된 것은 물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국 방문은 9월19일이었으며, 현지 도착 후 아티스트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현지 정부 지침에 따라 엄격한 코로나19 검사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박유천 측은 아티스트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항상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천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사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 진행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